

6면에 이어

감람나무 명령 따라 황무지에 십팔 년간

이와같이 천사 마귀라 하여 천염 마 되시는 분이 딸이 마귀라 하니 진짜 천사 마귀인 줄 알고 내가 무 엇 때문에 먹고 밥을 해 주고 있 나 하여 쌀 조금 있는 것마저 다 가 져가고 또 이놈의 마귀 새끼 죽으라 고 하여 두 달 석 달씩 굶어야 하는, 밥을 해 먹을 수 없어 방안에 앉아 있어야만 했던 것이다. 그런 고로 말할 수 없는 천대 멸시를 받는 중 에 참고 견디시어 이길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해 있었던 것이다.

[감람나무 명령 따라 황무지에 십팔 년간]

감람나무 명령 따라 ‘오만 제단 뒤에 가면 털보가 있으니 털보를 찾아가라. 제단에 들어오지 말라’ 하는 고로 노고 산 밑에 탄약고가 있었는데 그 탄약고 에서 영모님의 설교가 울려 퍼지는 소 리를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말씀을 들어 야 했고 그 음성이 그리워 이와같이 했 지만 ‘그것은 아직 어린 단계다. 네가 이 미 완성자 상태인 고로 엄마만 찾을 때 가 아니다.’ 하여,

거기에서 오만제단 밑에 소래산과 노 고산 사이에 내려가니 거기에 전봉국 집사가 있었던 것이다. 전봉국 집사가 그 당시 수염을 길러 털보처럼 하고 있 었던 것이다. 그러고로 가서 털보를 키 워라 하여 전봉국 집사를 키우려고 가 서 보니 거기에는 닭장이 하나 있는 고 로 닭장 안에서 거처하게 되니 천사 마 귀가 닭집에서 거처한다 하여 그것마저 도 할어버리고 만 것이다.

그러고로 신양촌 식구들이 와서 닭집 을 할어버리니 거처할 곳이 없어 그대 로 바위 위에서 거처해야 했고 잔디밭 위에서 거처해야 했던 것이다. 그 당시 전봉국 집사 어머니가 살아 계셨던 고 로 먹을 것이 없어 씬바귀를 캐다가 먹 어야 했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고로



해와 이긴자 홍업비님

전봉국 집사 어머니가 소사 삼거리로 나가 거지행세를 하여 보리밥 찬밥 덩 어리를 얻어다가 죽을 쑤어서 세 식구 가 먹었던 것이다. 그리하면서 순서껏 밀실 식구들이 몰려왔던 것이다.

그 당시 소사 신양촌 자유시장에 불 이 나서 타다 남은 판자 대기를 갖다가 영모님이 ‘털보의 거처할 곳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 명령에 따라 오만 제단 신 양촌 식구들이 가서 기도실을 지어준 것이다. 그리하여 조그마한 방 하나인 데 식구들이 모여서 죄의 뿌리를 뽑는 기도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일 년 이 년이 아니요, 십몇 년 이 되어지면서 은혜로 살려고 하는 전 도사들이 전부 거기를 거쳐 갔던 것이 다. 그러나 그대로 이 사람을 키워봐도 안 되고, 저 사람을 키워봐도 안 되고, 이 사람이 와도 진짜가 아니고, 저 사람 이 와도 진짜가 아니니 마지막에는 붉 은 용이라는 사람이 왔던 것이다.

붉은 용이라는 사람은 해와 이긴자를 개 패듯이 하는 자였던 것이다. 개 패듯 이 때를 맞으면서 은혜를 간직해야 하 는 이것을 6~7년간을 해야 하는 말할 수 없이 어려운 핍박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담 이긴자 조희성님

이 사람이 갈 무렵에는 붉은 용이라 는 사람이 함께 있으면서 해와 이긴자 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대로 거기에서 이 사람이 자라기 시작하니 그 붉은 용 마귀라는 사람이 떨어져 나가게 된 것이다. 이 사 람이 이기지 아니하였더라면 붉은 용 마귀가 떨어져 나갈 수 없었던 것이다.

[굶주림에 몸부림쳐 해산 수고 하신 엄마]

너무 굶고 너무나무 먹을 것이 없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사정에서 헤마야 하는 엄마.

[피눈물로 물들여서 에덴동산 회복 했네]

피눈물로 물을 들여서 에덴동산을 회 복하셨던 것이다. 바로 그 에덴동산이 바로 이 사람이 것이다. 여러분들 보기 에는 세상 사람 같지만 하나님이 찾은 에덴동산인 것이다. 하나님이 찾은 생 명과일ियो, 하나님이 찾은 에덴동산인 것이다. 마귀 육에 갇혔던 창조주 하나 님을 석방시켜 완전히 창조주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은 피눈물로 이루어진 것이 다.

[최후까지 참을 수 없는 순간에도 견뎌야 해]

참을 수 없는 순간, 이것이 바로 여러 분들! 말로는 쉬워도 이것은 도저히 참 을래야 참을 수 없고, 견딜래야 견딜 수 없는 경지가 있는 것이다. 그런 고로 견 딜래야 견딜 수 없는 순간에도 견뎌야 하는 것이 일 년 이 년이 아니요, 긴긴 세월을 두고 참고 견뎌야 했던 것이다.

[마귀 공격 빔발쳐도 쉬지 않는 기도 공격]

그러한 가운데 마귀 공격은 빔발쳐 오고 쉬지 않는 기도로 공격을 해야만 하는 숨 가쁘게 기도를 해도 마귀는 여 전히 개미떼처럼 몰려오는 가운데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의식을 잃어가는 상태 면,

[의식 잃어 죽어가도 낙심 않고 말기 면은 엄마께서 담당하여 우리들을 살려주네]

낙심 않고 온전히 말기고 나가면 엄 마께서 죄를 담당하여 우리들을 살려주 시는 이러한 것을 그대로 그려놓은 찬 송가 가사인 것이다.*

영생하는 사람들만 사는 시온성 시온성이 곧 이곳(소사)에 세워진다

시온은 하늘나라 이전에 세워지는 곳

여러분들 시온이라는 것이 어떤 곳인지 알아요? 시온은 하늘나라로 이루어지는 과정의 나라예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라는 찬송가가 있죠? “시온의 영광 이 빛나는 아침”이라고 했으니까 구세주 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가 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전멸되고 사람이 하나님이 된 세상이에 요, 구세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 하기 때문에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이라고 했던 거예요, “아름던 이 땅이 밝 아오네”라는 것은 인간들이 전부 하나님 이 되니까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을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모든 것을 알게 되는 지혜의 영광의 빛이예요.

시온에는 생수가 강같이 흘러

“말랐던 사뻏물 흘러오네” 하는 것은 영 적인 말씀인데 생수가 연결되면 사람들이 생수가 끊어졌다가 다시 연결되면 말랐 던 그 사뻏물이 흘러온다는 말이 되는 거 예요,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하는 것 은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이 되니 까 꽃처럼 아름다운 화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랐던 사뻏물들이 그 화초에 흐 른다는 거예요, 화초가 바로 하나님이 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고로 시온은 인간 세상이 뒤집어져 서 하나님의 세상으로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의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는 생수가 연결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생명수 가 바로 어린 양의 보좌가 근원이 되어서 흐른다는 찬송가가 있죠? 그 어린양이 구 세주를 말하는 거예요, 구세주의 보좌로 부터 그 생수가 흐르는 것입니다.

그러고로 생수가 강같이 화초와 같은 하나님 사이로 흐르는 것입니다. 그 생수 가 세계 만국에 다 흐르는 것입니다. 생

수가 흐르는 그 세계는 바로 시온의 세 계요 시온의 세계는 바로 인간들이 하 나 님이 된 세계인 것입니다.

만법전에 모든 인간들이 볼 속에서 산다 는 말을 했는데 이것은 구세주의 얼굴에 서 빛이 나가는데 소멸하는 불이 아니고 생명이 피는 불인고로 그날에는 인간 속 에 있는 나라는 의식의 마귀가 그 빛에 의해서 완전히 소멸되는 겁니다. 그러면 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으로 회복되는 거 예요, 하나님으로 회복된 바로 처음 이루 어진 하늘나라가 바로 시온의 나라예요, 아시겠어요?

임박한 시온의 나라

시온의 나라가 점점 임박하고 있어요, 그러고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노릇을 해야 하나님이 되는 거지 인간 노릇을 계속하 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 나님이 도려면 하나님 노릇을 해야 되겠 죠?

인간이라는 건 시기질투, 노여움, 화도 내고, 신경질도 내고 하죠? 그러면서 음란 죄도 짓고, 혐가를 부르죠? 인간의 탈을 벗 으려면 이러한 인간의 속성을 다 버려야 합니다.

하늘나라가 임박했어요, 인간 세상이 곧 끝납니다. 하나님의 세상이 도야버려 요, 우주가 하늘나라가 도야버리는 거예 요, 하늘나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예 요, 인간들이 하나님이 도야버리면 하 나 님이 계신 곳이 그 어디냐 하늘나라라고 그랬으므로 하늘나라가 이 우주에 설립되 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구세주가 하늘나라를 건설하러 온 거 지 여기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예요, 구세 주는 마귀를 전부 소멸해 버리고 하나님 만 사는 세상을 만들려 온 거예요, 이 세 상에 가짜 구세주가 많이 와가지고 나 도 구세주요, 나도 구세주요 하고 거짓말 했지만 그 거짓말이 조금만 있으면 틀통 이 납니다.* 2002년 2월 6일 말씀 중에서

격암유록 新 해설
수정판 제 76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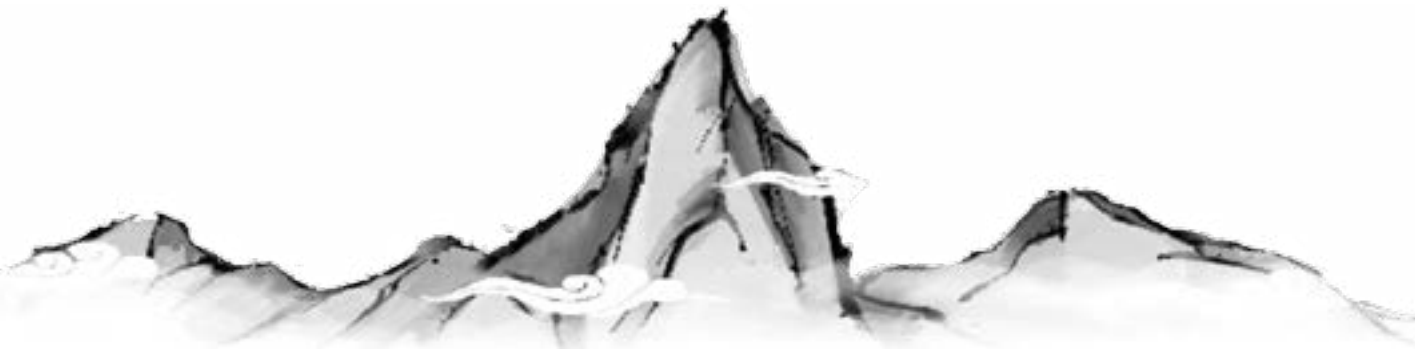
歌辭總論(三) 가사총론

弓弓貓關藏穀之處(궁궁묘강장곡지처)
牛聲出現見不牛(우성출현견불우)라
六坎水之一坎水(육감수지일감수)
河洛易數(하락역수)마치언네
利在石井靈泉之水(이재석정영천지수)
寺耆七斗作農(사급칠두작농)으로
天上北斗文星(천상북두문무지성)
曲土辰寸水源田(곡토친촌수원전)에
一六中出生命水(일육중출생명수)로
日就月將自羅(일취월장자라)오니
一日三食飢餓時(일삼식기아사)에
三旬九食不飢餓(삼순구식불기곡)을
水火昇降變化數(수화승강변화수)로
以小成大海印化(이소성대해인화)라

궁궁의 십승(하나님)이 계시는 궁전은 삼품의 영원한 생명의 곡식을 저장하는 곳으로 소 울음소리가 들리지만 소는 보 이지 않느니라. 육감수(六坎水)와 일감수 (一坎水) 즉 감로 해인의 생명수가 내림 으로 하도낙서의 역리(易理) 운수를 끝마 치게 되느니라.

농사에 이로운 석정(石井)의 신령한 샘 물로 칠두락(七斗落)의 눈을 농사짓는 것 과 같이 천상의 복두칠성인 문무성(文武星)이 하늘 농사를 짓는 맑은 수원(水源) 이 일류수(一六水)의 생명수인데 그 생명 수로 하늘의 곡식이 나날이 다달이 자라 고 발전하니 인간 세상의 농사로 짓는 곡

감로해인으로 마귀를 죽임으로써 불사영생의 천국이 회복되느니라



식은 하루 세 끼를 먹어도 배고프나 하늘 곡식(삼품지곡)은 한 달에 아홉 끼만 먹 어도 배고프지 아니하니라. 인간이 수승 화강(水昇火降)으로 인하여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작은 것으로써 크게 변화 하게 하는 해인의 무궁조화(無窮造化) 때 문이니라.

盤石湧出生命水(반석역출생명수)는 萬國心靈(만국심령) 다通(통)하니 不老不死(불로불사)영양도리(불로불사영양도리) 雙弓雙乙造化(쌍궁쌍을조화)로다 四八四乙雙弓之中(사팔사을쌍궁지중) 白十勝之出現(백십승지출현)하고 落盤四乳黃入腹而(락반사유황입복이) 雙乙之中黑十勝(쌍을지중흑십승)을 天理弓弓地理十處(천리궁궁지리십처) 皆白十勝傳(가알십승전)했으니 雲雲天地陰陽之理(궁을천지음양지리) 書數通達乾牛道(서수통달건우도)라 紫霞島中雲雲村(자하도중운촌)을 有無識間(유무식간) 말은하나

曲口羊角(곡구양각)하고보니
山上之鳥(산상지조)아니로세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명수는 만국 만 민의 심령에 다 통하니 불로불사의 음양 의 조화 음양합덕(田田전전)의 도와 이 치는 궁궁을을(弓弓乙乙)의 조화로다. 전 (田=四八四)자와 쌍궁(雙弓) 즉 궁궁 (弓弓)의 가운데에서 백십승이 출현하고 낙반사유(落盤四乳)와 황(黃)지의 뱃속 (田田)에서도 십승이 나오고 쌍을(雙乙) 즉 을을(乙乙)의 가운데서는 흑십승(黑十勝)이 나오느니라. 하늘의 이치인 궁궁 과 지리(地理)상의 십처(十處)를 다 십승 이라고 전했지만 궁을 천지 음양의 이치 를 담은 하도낙서와 역의 운행 도수에 통 달한 것만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불사영 생의 도이니라. 자하도 중의 궁을촌을 세 상에서 유무식(有無識)을 불문하고 말들 을 하지만 비뚤어진 입으로 양의 뿔로 나 팔 부는 격이라 정도령의 불사영생의 말 씀과는 거리가 먼 것이니라.

非山非野仁富之間 (비산비야인부지간)
奄宅曲阜玉山邊 (엄택곡부옥산변)
鷄籠白石平沙福處 (계룡백석평사복처)
武陵桃源此勝地 (무릉도원차승지)
一片福州安淨潔處 (일편북주안정결처)
誰是不知種桃人 (수사부지종도인)고
不利山水紫霞島 (불리산수자하도)를
平沙福地三十理 (평사복지삼십리)로
南門復起南韓祥 (남문부기남조선에
紅鸞赤霞遊觀處 (홍란적하피관처)를

궁을촌은 산이나 들이 아닌 인천 부평 부천사이에 있으니 엄택곡부(奄宅曲阜)의 옥산변(玉山邊)과 같은 곳이요 계룡백 석 즉 정도령이 소사(=白石백석)에 계시 니 부평 소사는 복된 곳이다. 무릉도원(신 선세계)은 하나님이 마귀를 이기신 곳이 요 비록 한 조각의 작은 고을이지만 복된 곳이요 평안하고 정결한 곳인데 누가 있 어 무릉도원의 복을아를 심는 곳을 알 리요. 세상의 산이나 물(지리상의 십승지) 에는 목숨을 보전하는 데 이로움이 없으

니 찾지 말라. 목숨을 보전하는 데 이로운 자하도(紫霞島)는 부평 소사에 있으니 복 된 땅이니라. 남대문에서 삼 십리 떨어져 있으며 다시 일어나는 남조선에서 봉황 새가 붉은 노을에 깃 드는 이곳이 말세의 피란처이니라.

自古只今此世 (자고지금차세)까지 儒佛仙出名哲 (유불선출명철)들이 參禪性覺道通 (참선성각도통)으로 肉死神生重生法 (육사신생중생법)과 河洛運來來世事 (하락운거래세사)를 先覺無疑知之故 (선각무의지지고)로 中天弓箭先天回復 (중천궁부선천회복) 四時長春新世界 (사시장춘신세계)라

예로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의 유불선 의 뛰어난 철인들이 참선을 통하여 분성 을 깨닫고 도통하여 육사신생(肉死神生) 즉 옛사람의 몸을 벗고나라는 의식을 벗 어나서) 하나님의 신으로 거듭나 영생하 는 중생법과 하도낙서의 운이 오고 갑에 따라 세상사의 변화를 선각자들은 의심 없이 아는 고로 말세의 피란처를 은연중 에 증거하였느니라. 중천운의 십승 진리 에서 나온 감로해인으로 사망의 신인 마 귀를 죽임으로 에덴동산(하늘나라)이 회 복되어 사시장춘의 불사영생의 새 세상 이 열리게 되느니라.*

박명하 / 고서연구가 010-3912-5853
myunghpark23@naver.com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승리신문은 독자들의 정성어린 성금으로 만들어집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승리신문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윤봉수 편집인 박태선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됨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의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14679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